

한국저고리의 유형분석 韓國赤古리의 類型分析

고 복 남
高 福 男
(淑明女子大學校助敎授)

<目 次>

- | | |
|-----------------|---------------|
| I. 序言 | IV. 赤古리의 用語變遷 |
| II. 韓國赤古리의 構成要素 | V. 赤古리의 類型分析 |
| III. 韓國赤古리의 概念 | VI. 結語 |

I. 서언(序言)

저고리(赤古里)는 저고리라고 발음되고, 한국민족의복(韓國民族衣服)으로서 확고(確固)한 위치에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의복(韓國衣服)의 대명사(代名詞)로서 한민족(韓民族)을 설명(說明)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重要)한 요소(要素)이다.

이 저고리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학자(學者)들에 의해 논의(論議)되어 왔으나, 아직도 저고리에 대해 연구(研究)해야 될 과제(課題)는 많다고 본다. 특히 어원(語源)을 밝힌다든가, 형성체계(形成體系)를 알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현단계(現段階)로서는 자료(資料)의 보완(補完)이 기대(期待)된다. 필자는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에서 저고리(赤古里)의 체계적연구(體系的研究)에 접근(接近)하고자 했다.¹⁾ 거기에서는 저고리의 「깃」에 의한 양식변천(樣式變遷)을 구해보았다. 깃은 저고리(赤古里)의 가장 중요부분(部分)으로 인정(認定)할 수 있으나, 깃 이외의 다른 세부(細部)에 대해 두루 고찰(考察)하는 것도 저고리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저고리(赤古里)의 여러 유형(類型)을 알아 보기 위하여, 먼저 저고리의 구성요소(構成要素)를 검토(檢討)한 후 실물(實物)저고리를 중심으로 저고리의 유형(類型)을 분석(分析)해 보려 한다. 물론 논의(論議)의 전개상 앞서 발표(發表)된 논고와 다소 중복(重複)되는 점도 있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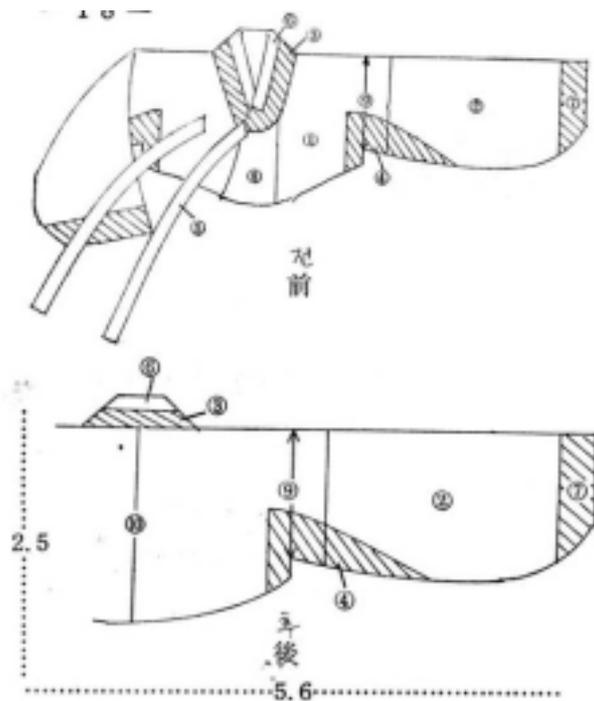
저고리는 한민족(韓民族)의 정서(精諸)에 맞게 오랜 기간 동안 영속적(永續的)으로 전승(傳承)해 온 것이므로, 저고리(赤古里)에 대해 잘 아는 것은 한국(韓國)의 문화(文化)를 이해(理解)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전세계 어느곳에 내 놓아도 한국의 의복으로 널리 알려진 저고리에 대해, 그 변천과정(變遷過程)이나 특성(特性)을 파악(把握)하고, 그 유형을 분석해 보는 것도 복식연구(服飾研究)에 의의(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한국저고리(韓國赤古里)의 구성요소(構成要素)

저고리는 한국인 누구나가 흔히 접(接)하고 착용(着用)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세부적(細部的)으로 어떤 요소(要素)로 구성(構成)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는 저고리의 이해(理解)를 돕기 위하여 각부(各部)의 명칭(名稱)을 소개하고 구성요소(構成要素)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림 1)

저고리의 구성요소는 길(동, 胴), 소매(수, 袖), 깃(금, 衿) (령, 領), 회장(回裝), 옷고름, 동정(同正), 끝동(수단, 袖端), 쇠(입, 衽), 진동, 뒷중심선 등으로 구분(區分)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길(동, 胴) - 앞, 뒤의 몸체(구간부, 軀幹部)를 말하고, 옷의 넓이는 품으로 표시한다.
- ② 소매(수, 袖) - 소매는 길과 직선(직선, 直線 straight)으로 달리는 특성(特性)을 갖는다. 그것은 저고리(赤古里)가 형성(形成)된 이래(以來)로 변한 적이 없는 기본구조(基本構造)다.
- ③ 깃(금, 衿) - 저고리의 깃은 양복(洋服)의 깃과는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 물론 깃이 목둘레를 싸



(그림 1) 한국저고리의 기본형태 및 세부명칭

(그림 1) 한국저고리의 기본형태 및 세부명칭

는 옷의 부분(部分)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은 일치하지만, 깃이 갖는 기능(機能)이나 형태변화(形態變化)는 한·양복이 서로 다르다. 저고리의 깃은 뒷목이 끈게 올라서고, 앞깃은 평면에 놓이는 구조(構造)를 갖는 것을 특징(特徵)으로 볼 수 있다. 이 깃은 얼굴

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부분(部分)으로서 시대(時代)에 따른 형태변화(形態變化)가 뚜렷하다.

④ 회장(回裝) - 회장은 저고리 길의 결밀과 소매 부분에 장식선을 댄 것을 말한다. 회장은 저고리의 구성에 필수적 요소는 아니고, 단지 부가적(附加的)인 장식(裝飾)의 의미를 갖는다. 시대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고리를 특색지우는 일면이기도 한다.

⑤ 옷고름 - 옷의 좌(左)·우(右)에 달아 잡아매어 고정시키는 것으로 「고름」이라 하기도 한다. 홀저고리(적삼(赤衫)이라함)에는 옷감으로 맺은 단추를 쓰기도 했다. 옷고름도 시대에 따라 형태상(形態上)의 변천(變遷)이 있어서, 옷고름에 대해서 관찰해도 저고리의 시대구분(時代區分)이 가능(可能)하다. 즉 조선초기(朝鮮初期) 이전(以前)의 옷고름은 짧고 좁아서, 옷을 잡아매는 실용성(實用性)에 한(限)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점차 넓어져서 오늘날에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넓고 길어졌다.

⑥ 동정(同正) - 동정이란 것의 목주위(경부, 脛部)에 덧붙이는 부분(部分)의 이름이고 대개 흰색의 옷감을 사용한다. 현대(現代)에 와서는 동정은 저고리의 필수적(必須的)인 요소(要素)가 되고 있으나, 과거(過去)에는 저고리에 동정이 없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 소재(素材)도 시대(時代)에 따라 바뀌고, 넓이도 달라져서 저고리의 변천(變遷)을 알아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⑦ 끝동(袖端) - 끝동은 소매 끝에 이색(異色)천을 대는 것으로 회장(回裝)저고리의 한 요소(要素)가 되고 있다.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로서는 하나의 장식(裝飾)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전에는 끝동은 그 기능(機能)이 현대에 비할 때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복식(服飾)에서는 넓은 수단(袖端)에 백소(白絹)로 봉제(縫製)한 저고리가 많아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오는 이른바 초수(襟袖)(초수로 읽어야 될 것으로 본다)는²⁾ 바로 소매 끝단의 백소(白絹)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매 끝에 백색(白色)을 대었던 것은 백색(白色)의 의미(意味)에 따르는 지고(至高)의 종교적의미(宗教的意味)를 상징(象徵)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⑧ 쇄(衿, 衿) - 저고리의 구성요소(構成要素)로서 특성(特性)을 가지는 것의 하나가 앞중심선의 좌(左)·우(右)에 봉제(縫製)되는 쇄이다. 쇄의 기능(機能)은 뒷품에 비해 넓은 치수가 요구되는 앞품처리에 있다고 생각되고, 앞쇄는 길에 달리는 쪽은 직선(直線)으로 완성선(完成線)에 달리는 쪽은 사선(斜線)으로 구성된다. 또 이것은 앞가슴을 단정하게 여며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정리(整理)해 주는 기능도 갖고, 시대에 따른 수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쇄의 넓이는 것의 넓이와 가장 밀접(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변한다.

⑨ 진동 - 진동은 길과 소매의 분계점(分界點)을 말하고, 가슴둘레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진동은 소매의 기점(起點)에 해당되므로 활동(活動)의 직접적(直接的)인 요소(要素)가 된다. 진동은 저고리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데 소매폭이 좁아지거나 활동(活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진동 밑에 삼각형의 무(당, 襠)를 덧대어 봉제(縫製)했다. 저고리에 소매가 직선형이므로 진동선도 언제나 직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⑩ 뒷중심선 - 뒷중심선은 저고리의 뒷길의 중심에서 박아진 선이다. 이것은 저고리의 구성요소(構成要素) 중에서 가장 기본적구조(基本的構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저고리가 세부적(細部的)으로 변천(變遷)되어도 뒷중심선을 이어야 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뒷중심선은 저고리의 구성(構成)에서는 가장 필수적(必須

的)인 요소(要素)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구성요소(構成要素)는 다른 민족(民族)의 옷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저고리의 구성요소는 다른 지역의 저고리와 구분(區分)되는 독자적(獨自)인 양식(樣式)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대(時代)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변천 중에서도 그 명맥(命脈)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저고리의 전통성(傳統性)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III. 한국저고리(韓國赤古里)의 개념(概念)

남자(男子)의 저고리는 바지 위에 입어서 두루마기 밑에 내의(內衣)로, 여자(女子)의 저고리는 치마 위에 외의(外衣)로서 착용(着用)된다.

저고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매가 직선형(直線型)(straight sleeve)이고, 앞이 터진형(전개형, 前開型 front opened)이라는 기본구조(基本構造)를 가진다. 세계의 복식유형(服飾類型) 중에서는 캐프탄 스타일(Caftan or Kaftan style)에 속한다고 분류되고 있다. 길(胴, bodyce)이 완전히 평면형(平面型)으로 구성(構成)되므로 체형형(體形型)인 서양복(西洋服)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이처럼 평면형(平面型)이고 직선(直線)소매인 상의(上衣)는 아세아(亞細亞), 중남미(中南美) 등의 여러 지역에서 착용(着用)되고 있다. 한국의 주변민족(周邊民族)인 중국(中國)의 소수민족(少數民族) 중에는 저고리와 유사(類似)한 구조를 가진 옷을 전통적(傳統的)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존속(存續)시키고 있는 저고리의 형태(形態)는 한국의 저고리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것은 전승(傳承)돼 오는 과정(過程)에서 이질적(異質)적으로 변천(變遷)되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저고리를 언제부터 한민족(韓民族)이 착용(着用)해 왔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단계에서는 뚜렷이 밝히기가 어렵다. 오랜 전통성(傳統性)에 미루어 볼 때, 한민족(韓民族)이 형성(形成)된 이후로 착용되기 시작한 상의(上衣)가 점진적인 변천(變遷)을 거쳐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현존(現存)한 과거의 유물저고리(遺物赤古里)에서는 한국저고리의 어떤 맥락(脈絡)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 선조(先祖)들이 겪었던 생활변천(生活變遷)의 한 면이기도 하다. 과거의 유물에서 볼 수 있는 복식변천(服飾變遷)의 요인(要因)은 현재(現在)의 저고리에 이르는 지침(指針)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저고리에도 전해질 수 있는 요인(要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V. 저고리(赤古里)의 용어변천(用語變遷)

저고리(赤古里)란 용어(用語)가 직접적으로 문헌(文獻)에 보이는 것은 조선초(朝鮮初) 세종(世宗) 때인 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 이전에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초기 이전의 저고리 용어는 상의(上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고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명칭은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에 기록된 신라의 「위해(尉解)」다. 이 「위해」가 임란(壬亂) 전의 번역소학(翻譯小學)에 「우티」로 표기(表記)되어 있고,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우치」 또는 「우테」라는 말이 상의(上衣)의 대명사(代名詞)로 쓰이고 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³⁾ 즉 그것은 저고리의 이명(異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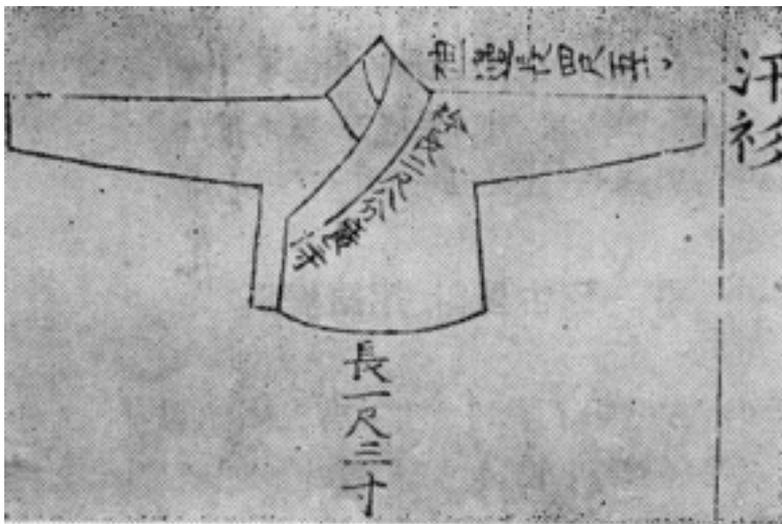
기도 하고 상의(上衣) 전체를 의미하는 통칭(通稱)으로도 볼 수 있다.
저고리에 대한 용어를 시대별로 그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이전(三國時代以前)의 저고리(赤古里)

삼국시대이전(三國時代以前)에 저고리란 내용으로 표기(表記)된 용어(用語)는 이십오사(二十五史)의 기록(記錄)에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유(襦), 삼(衫), 의사포(衣似袍)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襦)

유는 저고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숨둔옷」이라는 의미도 된다. 유에 대해서는 황유(黃襦)⁴⁾, 장유(長襦)⁵⁾등의 기록이 있고 악공(樂工)이나 부인(婦人)이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까지도 남자옷에 장유(長襦)가 있어 물론 남자옷으로도 유(襦)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유(襦)의 세부형태(細部形態)가 어떻게 구성(構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초기의 유물(遺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착용되고 있는 저고리의 구성요소(構成要素)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學界)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저고리에 깃이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 별로 언급(言及)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그 시대에는 선(襖)을 댄 저고리가 일반적인 유형(類型)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깃이



(그림 2) 악학궤범의 한삼 (악학궤범의 한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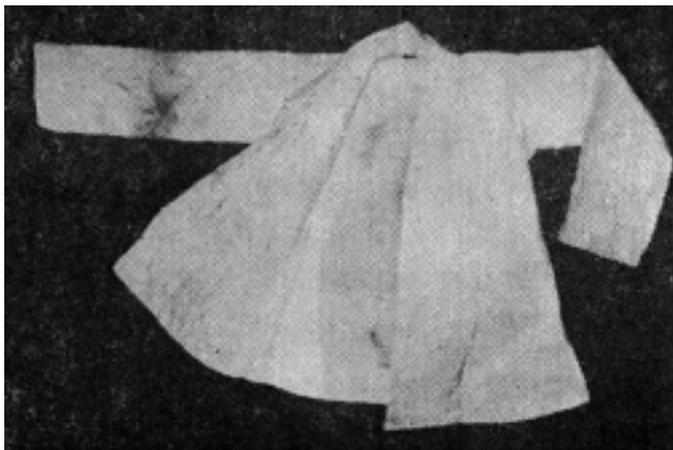
(그림 2)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한삼(汗衫)

언제부터 형성(形成)되었는가에 대해 논의(論議)된 후에 다룰 문제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깃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저고리가 있다는 점은 여기서 지적할 수 있다.

② 삼(衫)

이 「삼」이란 용어(用語)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여름용의 홑옷을 말하는 적삼(赤

衫)(또는 적삼, 的衫)이나, 무용복의 소매 끝에 늘어뜨리는 천을 의미하는 한삼(汗衫)등이다. 적삼은 저고리와 같은 형태(形態)의 홑옷이고 한삼(汗衫)은 현재는 소매 장식용(裝飾用)의 통으로 된 긴 옷감을 의미하지만, 조선초 이전까지도 소매가 긴 저고리의 의미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도시(圖示)되어 있는 한삼(汗衫)(그림 2)은 저고리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삼(衫)의 기록(記錄)은 대수삼(大袖衫)⁶, 복삼(複衫)⁷, 삼통수(衫筒袖)⁸, 삼통수(衫筒袖)⁹, 삼(衫)¹⁰등이다. 조선시대에는 원삼(圓衫), 앵삼(鶯衫) 등이 있어 저고리라기 보다는 긴 옷옷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3) 긴 저고리—이것은 ^{의사포}衣似袍라는 용어(用語)에 일치한다

(그림 3) 긴 저고리 - 이것은 의사포(衣似袍)라는 용어(用語)에 일치한다.

③ 의사포(衣似袍)

백제(百濟)의 부인(婦人)이 입었다는 의사포(衣似袍)¹¹는 포와 비슷한 옷이라는 의미로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복식에서는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연장하면 포(袍)가 되므로, 의사포(衣似袍)란 포(袍)를 연상시키는 긴 저고리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출토(出土)된 조선초기의 의복 중에는 의사포(衣似袍)란 말에 꼭 부합되게 생각되는 너무나 긴 저고리가 있어 (그림 3), 의사포란 이와 같이 긴 저고리였던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이 저고리는 백명주(白明紬)를 누빈 것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87cm이다. 여기서 길이가 길다던지 짧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뒤에 표(表)에서 제시할 것이지만 먼저 조선초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야 70cm를 넘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현재의 저고리 길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저고리가 60cm 내외이다.

2.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저고리(赤古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단의(短衣)와 내의(內衣)가 있고¹² 그것이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는 누구나가 이견이 없다. 이여성(李如星)은 「단의(短衣)라는 것은 유(襦)이다」¹³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유(襦)의 내용(內容)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로 단의(短衣)의 설명으로는 미흡하다.

단의(短衣)는 여복(女服)의 조항에서만 볼 수 있어서, 단의(短衣)가 문자(文字)가 명시(明示)하는 바의 짧은 상의(上衣)라는 의미로 당시의 여자저고리의 길이가 짧았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⁴⁾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단의(短衣)가 유(襦)라면 남자(男子)는 단의(短衣)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남자(男子)의 저고리는 어떤 항목(項目)으로 볼 수 있나?

둘째, 단의(短衣)가 짧은 길이의 저고리로 본다면 당시 남(男)·녀(女)의 저고리에 해당된다고 보는 「내의(內衣)」는 男·女공(共)히 길다는 것인지?

위의 두가지 의문에서 필자(筆者)는 다음과 같이 제의(提議)하고자 한다. 단의(短衣)를 단의→당의로 변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의의 와음(訛音)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라는 용어(用語)는 조선말엽(朝鮮末葉)에 사용된 말이고 조선후기(朝鮮後期)에도 전부 당저고리, 당고의, 당한삼 등으로 표기(表記)되고 있다.¹⁵⁾ 이 때 저고리



(그림 4) ^대대키는 여자의 짧은 저고리

(그림 4) 대(確)키는 여자의 짧은 저고리

나 고이, 한삼 등을 수식하고 있는 “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意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코」라는 소위 코가 뽀쪽한 형태를 가진 옷에 붙는 접두어로 볼 수도 있다. 저고리, 고이, 한삼의 구분은 조선시대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남(男)·녀(女)의 저고리가 대개 길게 묘사되어 있어서, “삼국시대에는 긴 저고리를 입었다”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안악삼호분(安岳三號墳)의 대(確)키는 여인(女人)의 저고리에서는 허리길이까지 오는 짧은 저고리를 볼 수 있다. (그림 4) 안

악3호분은 4세기경의 벽화(壁畵)로, 그 시대에 이미 긴 저고리와 더불어 작업에는 짧은 저고리를 착용했음을 확인(確認)할 수 있는 자료(資料)가 된다. 그와 같은 허리길이가까지만 오는 저고리는 조선중기(朝鮮中期) 이전(以前)까지 계속적으로 전승(傳承)되어 왔다.

3.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저고리(赤古里)

고려시대는 복식(服飾)에 관계된 문헌기록(文獻記錄)이 희소하고 저고리에 대해 별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의(衣)」라는 표기(表記)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유제(遺制)를 정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저고리(赤古里), 한삼(汗衫) 등의 용어(用語)가 발견되지만, 그것은 조선초기에 편성(編成)되었으므로 고려시대의 명칭을 그대로 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4.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저고리(赤古里)

저고리(赤古里)라는 용어(用語)가 처음으로 보이는 때는 조선초(朝鮮初) 세종(世宗)때이다. 저고리에 관계된 용어(用語)로는 그외에도 포오(袍襖), 호수(胡袖), 삼아(衫兒), 겹격음(袂隔音), 소대(小對), 소고의(小古衣), 동의대(胴衣襖), 한삼(汗衫), 적삼(赤衫), 당저고리, 당고의, 당한삼 등이 있다.

① 저고리(赤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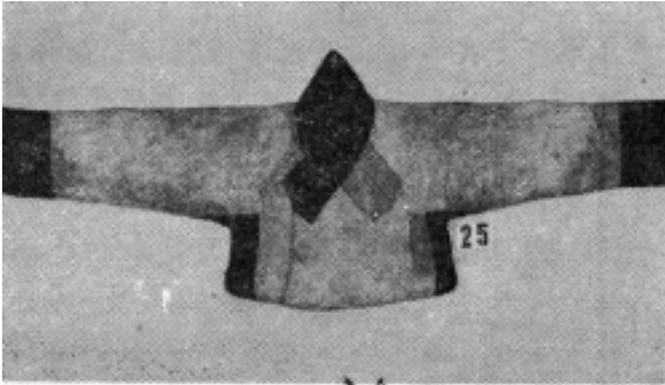
현재까지도 한국복식 가운데 상의(上衣)의 대명사(代名詞)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기록(記錄)은 세종(世宗) 때의 「홍단자저고리(紅段子赤古里)」이고¹⁶⁾ 중기(中期)의 상방정례(尙方定例)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도 저고리(赤古里)란 용어(用語)는 많이 보인다. 상방정례(尙方定例)중의 저고리(赤古里)는 조선말기의 당저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의 저고리는 호수(胡袖)이다.

② 포오(袍襖)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포오는 속칭(俗稱) 저고리(赤古里)라 한다고 표기(表記)되어 있다. 이 포오(袍襖)란 용어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다. 문자(文字)의 의미로에서 볼 때는 긴 저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소삼(小衫)이라는 항(項)이 있어 보통 저고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본다.

③ 호수(胡袖)

호(胡)는 호복(胡服)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호복(胡服)은 몸에 달라 붙는다는 성격에서, 호수(胡袖)란 꼭 끼는 좁은 소매의 저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저고리 유물에는 소매가 꼭 끼게 좁은 것이 많아서 저고리의 명칭을 호수(胡袖)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5) 이와 같이 소매가 끼는 상태의 저고리는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착용(着用)되었고 유물(遺物)로 전하는 것도 많다.



(그림 5) 조선중기의 호수(胡袖) -입으면 소매가 끼는 정도의 치수다.

(그림 5) 조선중기의 호수(胡袖) -입으면 소매가 끼는 정도의 치수다.



남자의 대 매는 저고리-혜원

(그림 6) 남자의 대 매는 저고리 -혜원 풍속도에서

④ 삼아(衫兒)

홀저고리로 옆솔기가 터지게 봉제(縫製)된 저고리다. 조선중기의 문헌에서 나타나고, 대(帶)를 매어 입는 옷으로 생각된다. 남자의 저고리에 대(帶)를 매어 입는 습속은 18세기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림 6) 삼아(衫兒)는 백색(白色)의 주(紬), 소(綃), 저포(苧布)를 홀(단,單)으로 봉제(縫製)한 저고리다.

⑤ 겹격음(袂隔音)

세종(世宗)때에 표기(表記)된 것이고 문자의 뜻으로 볼 때 저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조선말기의 운막이(纈莫伊)나 회장저고리(回裝赤古里, 호장저고리)와 같이 소매 밑에 장식선(裝飾線)을 낸 저고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⑥ 단저고리(短赤古里)

조선중기 이후의 문헌(文獻)에 단저고리(短赤古里)라는 용어(用語)를 볼 수 있다. 1627년 이후부터 볼 수 있는 역대(歷代)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중궁(中宮)과 빈궁(嬪宮)의 의대조(衣襟條)에 단저고리가 있다. 이 단저고리의 구성(構成)은 청색계통(靑色系統)의 직금필단(織金匹段)에 대홍금선(大紅金線)의 깃을 달고 후첩금(厚帖金)을 한다. 이와 같이 단저고리는 착용자(着用者)가 최고 신분의 여성에 한정되고, 고급직물로 봉제(縫製)되었던 한계성이 있는 저고리다.

이 단저고리(短赤古里)는 영조(英祖)때(1750년경) 상방정례(尙方定例)를 편성할 때는 마련 품목에서 빠졌다. 그것은 영조당시에 의복제도를 정하는 목표가 낭비를 막고 절약하자는 의도에서, 단저고리가 제외되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영조때에 시행되었던 1759년의 가례(家禮)에는 중궁(中宮)의 저고리에 단저고리는 없다. 그러나 1818년에 거행된 순조(純祖)때의 가례에는 다시 단저고리(短赤古里)가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볼 때 단저고리는 저고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고급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역대(歷代)의 단저고리(短赤古里)를 제작(製作)하는 데 청색계(靑色系) 이외(以外)의 직물을 사용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저고리는 반드시 청색계(靑色系)의 직금단(織金段)에 다홍색 금선(金線)을 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단저고리가 옆트임이 없이 막혔는지, 또는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자료를 기대한다.

⑦ 소대(小對)(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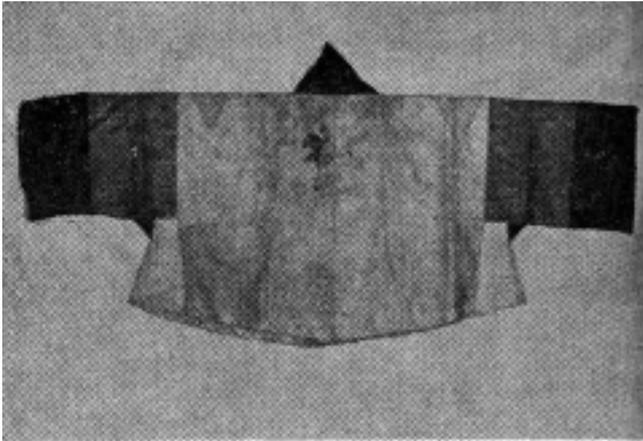
1466년경(年頃) 착용(着用)되었던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조선초기의 유물(遺物)저고리에는 소대(小對)라는 목서가 적혀 있다. 이것도 역시 일종(一種)의 회장저고리(回裝赤古里)로 볼 수 있고, 궁중(宮中)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비(世祖妃)의 저고리일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⑧ 소고의(小古衣)

왕족여인(王族女人)의 저고리를 표기(表記)한 것으로는 소고의(小古衣)라는 말도 있다. 소고의(小古衣)는 당고의에 비교되는 말로 길이가 짧은 저고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⑨ 동의대(胴衣襟)

조선말기의 발기류에는 왕(王)의 저고리를 동의대(胴衣襟)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동체(胴體)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이고 저고리와 같은 뜻이다. 민간에서는 동의라고만 사용하기도 했다.



장씨소대
(그림 7) 長氏小對의 목서가 있는 조선초기 저고리의 後面

(그림 7) 장씨소대(張氏小對)의 목서가 있는 조선초기 저고리의 후면(後面)

⑩ 한삼(汗衫)

조선초기부터 보이는 용어로, 후기에는 소매끝의 늘어진 백색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악학계범(樂學軌範)의 도표(圖表)에 의하면 (그림 2) 소매가 긴 저고리를 의미하므로, 한삼(汗衫)이 애초에는 긴 저고리를 입어 소매 끝이 늘어지던 것이 점차 퇴화(退化)하고 분화(分化)하여 소매 끝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⑪ 적삼(赤衫)

숨을 두지 않고 겹으로 지은 저고리를 말하고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적삼(的衫)으로 표기(表記)돼 있다. 지금도 겹저고리에 대해 흔히 사용하고 있고, 적삼에는 옷고름을 사용하는 대신 매듭 단추를 쓰는 예가 많다.

⑫ 당저고리

오늘날 이른바 당의라는 것은 옆이 절개된 긴 저고리다. 당저고리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말기(朝鮮末期)부터다. 「당의」라는 말은 거의 근대적(近代的)인 용어(用語)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고리의 용어 변천에서 볼 때 당의라는 것이 당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한 석은 다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고의」는 당저고리의 짧은 형태로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제시(提示)한 순화당첩초에서 추동용(秋冬用)으로 중요한 절일(節日) 이외(以外)의 날에 착용(着用)되었던 사례에서 고증이 된다. 당한삼은 하절용(夏節用)의 얇은직물을 홑으로 봉제(縫製)한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저고리는 여러 가지 表現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온 用語이다. 현재는 저고리, 적삼, 한삼, 고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V. 저고리(赤古里)의 유형분석(類型分析)

실물저고리(實物赤古里)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저고리는 몇가지 유형(類型)으로 구분(區分)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類型)의 기준은 남녀(男女)의 성별(性別)이나 계절(季

節), 시대(時代), 용도(用途), 형태(形態), 세부항목(細部項目) 등 다양(多樣)하다.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을 기준으로 해도 저고리의 변천과정이 밝혀진다고 본다. 그 속에서도 어떤 유형이 한국의 저고리를 논의하는 데 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性別)

복식(服飾)에서 성차(性差)가 구분(區分)되는 것은 약 3만년 전인 크로마뇽인 시대부터 알려져 있다. 남자(男子)와 여자(女子)의 물리적특징(物理的特徵)에 따라 복식화(服飾化)되기도 하고, 사회적신분차(社會的身分差)에 따른 남녀의 역할 분담도 복식(服飾)의 변화(變化)에는 큰 영향을 준다. 한국의 저고리를 성별(性別)로 구분(區分)해서 살펴보면 과거의 사회구조(社會構造)에서 남자(男子)와 여자(女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문헌상(文獻上)으로는 자료가 워낙 미비하여 성별(性別) 구분 연구는 불가(不可)할 정도다. 그외에 실물(實物) 저고리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물자료(實物資料) 역시 영성하다. 모든 저고리 자료가 시대(時代)에 따라 남·녀의 저고리가 고루 남아있지 않다. 삼국시대의 벽화에는 남자저고리가 많고, 조선시대의 실물에는 여자저고리가 많다. 따라서 현대에서 남(男)·녀(女)의 성차(性差)로 유형을 구분하여 고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

2. 계절별(季節別)

복식(服飾)은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게 된다. 한국과 같이 4계절이 뚜렷하여 기온차가 많이 날 때는 복식(服飾)으로 체온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 계절에 따라 저고리의 명칭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실물 저고리에도 계절에 따라 재질(材質)과 봉제방법(縫製方法)의 차이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계절에 따른 형태변화(形態變化)는 뚜렷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저고리를 계절별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은 별다른 의의가 없다고 본다.

3. 용도별(用途別)

저고리는 기능적(機能的)인 면(面)과 도덕의례적인(道德儀禮的)인 면(面)에서 대별(大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복(日常服)과 의례복(儀禮服)으로 구별(區別)할 수 있고, 특히 저고리에서는 이 용도별구분(用途別區分)이 중요한 연구항목이 된다고 본다. 많은 실물 저고리에는 평상복(平常服)인데도 소매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一般的)으로 무용복이나 특수복이니까 길다는 정도의 개념이 우세한 실정이다. 실제로 실물저고리(實物赤古里)에 나타난 소매가 긴저고리는¹⁷⁾¹⁸⁾ 서민(庶民)의 평상복(平常服)에서도 나타나므로¹⁹⁾ 긴소매 저고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理解)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매가 길다는 것은 신체(身體)의 일부확대현상(一部擴大現象)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착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소매가 길거나 짧다는 것은 형태적(形態的)으로 구별할 수도 있으나, 그 용도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소매가 긴 옷

은 의례복이라는 면 보다는 일상복(日常腹)의 의례적 성격에 그 특징(特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인이 손이나 손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또는 옷의 확대(擴大)가 가지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긴소매 저고리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긴소매 저고리의 개념

소매가 길다는 것이 어떤 칫수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한복의 소매길이는 「화장」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뒷목점에서 어깨뼈를 지나 팔목점까지 측정한 칫수를 말한다. 평균적인 칫수는 별고(別稿)에서 다룬 바 있고,²⁰⁾ 대개 70cm를 기준하면 긴 저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女子)의 저고리가 70cm 이상이 되면 긴소매 저고리이다. 70cm 이상으로 긴소매는 손을 덮을 것이고 일상복(日常腹)에 긴소매가 착용된다면 그 속에는 전승(傳承)되어 내려오는 손에 대한 관념(觀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손을 가려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意味)를 가지는 것인가? 고려시대의 비첩(婢妾)이 손에 부채를 잡고도 손톱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삼으로 손을 가렸다는²¹⁾ 기록(記錄)에서 볼 때, 손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남에게 보이면 안된다는 금기(禁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긴소매 저고리의 자료(資料)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는 긴소매 저고리를 흔히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저고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조선시대에는 전기(全期)를 통해서 볼 때 초(初)·중기(中期)까지는 긴소매 저고리가 상당히 많다. 남자(男子)의 삼아(衫兒)도 긴 소매고, 왕비(王妃)의 저고리(赤古里)에서 (그림 8) 서민녀(庶民女)의 숨저고리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 9) 여기에 제시(提示)한 자료(資料) 외(外)에도 긴소매 저고리는 십여점이 발굴(發掘)되



(그림 8) 왕비의 긴소매 저고리 (화장 97.2ar)
1620년대

(그림 8) 왕비의 긴소매 저고리(화장 97.2ar) 1620년대



(그림 9) 서민녀의 일상용 긴소매 숨저고리
(화장 99ar) 1590년대

(그림 9) 서민녀의 일상용 긴소매 숨저고리(화장 99ar) 1590년대

었고 조선 말기의 긴소매 저고리는 전하고 있지 않다.

이 소매가 긴 저고리는 한국인들이 손을 상대에게 내보이는 것을 대단한 실례로 알았던 관습이 의복에 상징화(象徵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웃어른께 의례(儀禮)를 갖추는 일에 손과 손톱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은 최근까지 충청(忠淸)·전라(全羅) 지역에서는 상여가 지나갈 때는 상여를 보고 손톱을 가리지 않으면 부모님상을 당한다“하여 손톱을 감추는 관습과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손톱을 가려야 된다는 명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장수하시게 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면에는 상여 안에 계신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손톱을 가림으로서 표현(表現)하고자 하는 관습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4. 시대별(時代別)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서도 형태가 변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부양식의 변화도 현저하므로 시대별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저고리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각 시대별로 저고리의 자료가 고루 남아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대적 구분은 시대에 기준(基準)을 두기 보다는 각 항목(項目)에 기준을 두고 시대별로 알아보는 일이 바람직하다.

5. 형태별(形態別)

저고리는 그 형태적 특성에서 변천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 세부항목(細部項目) 중에서 어디를 보아도 저고리의 연구는 가능하며, 시대적으로도 구분(區分)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을 저고리 연구의 기준으로 보느냐는 문제는 각자의 견해(見解)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저고리의 형태에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저고리 깃의 변천(變遷)
- ② 저고리의 길이
- ③ 소매길이와 형태(形態)

- ④ 결섵과 안섵의 크기와 형태(形態)
- ⑤ 결무(방입, 旁衿)의 유무(有無) 및 결무의 변화
- ⑥ 회장(回裝)의 유무(有無)와 크기
- ⑦ 소매끝(수단, 袖端, 거, 袂)의 넓이와 장식천(裝飾襟)의 유무(有無)
- ⑧ 저고리의 넓이(폭)
- ⑨ 옆트임의 유무(有無) 등
- ⑩ 옷고름의 색(色), 길이, 넓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천요인(變遷要因)들은 한가지 요소(要素)가 변함에 따라 부수적(附隨的)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독자적(獨自的)으로 변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저고리가 옆이 트였느냐 안트였느냐는 다른 변천요소(變遷要素)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



<그림10> 선이 옷단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형태-무용벽화에서 (1)



<그림10> 선이 옷단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형태-무용벽화에서 (2)

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옆트임의 곡선(曲線)이 변화(變化)하는데는 다른 요소와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체계적(體系的)으로 보는데는, 저고리의 중심이 되는 한가지 요소를 基準으로 삼아서 다른 附隨的인 요소를 미루어 볼 수도 있다.

앞에서 본 저고리 자료(資料)의 여러 가지 세부요소(細部要素) 중에서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보는 기준(基準)으로 삼을 수 있는 한가지 요소(要素)는 저고리의 「깃」이라고 생각한다. 깃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데 위치하고 두부(頭部)와 구간적(軀幹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고리의 다른 어떤 요소(要素)보다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깃」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알아볼 수 있는 요인(要因)이 된다고 본다. 여기서는 「깃」을 가지고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파악(把握)하고자 하므로 깃의 개념(概念), 기원(起源), 변천(變遷)의 요인(要因)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깃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실물을 가지고 고찰(考察)하여 저고리 변천양식(變遷樣式)의 기준(基準)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저고리의 깃에 따른 유형분석(類型分析)

ㄱ. 깃의 개념(概念)

깃은 의복(衣服) 중에서 목을 싸는 부분(部分)이다. 그것은 경부(頸部)와 구간부(軀幹部)의 분기점(分岐點)에 위치(位置)하고 의복(衣服)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깃은 령(領)으로 표기(表記)되고 금(衿), 금(금), 루(루), 루(루)도 같은 뜻이다. 옷 한벌에는 반드시 깃이 하나가 존재하므로 옷을 세는 단위로서 일령(一領), 이령(二領) 등으로 쓰기도 한다.

깃은 형태(形態)에 따라 직령(直領), 단령(團領), 곡령(曲領), 반령(盤領), 방령(方領)등의 명칭(名稱)이 있고, 문양(紋樣)에 따라 보령(黼領), 불령(黻領)등, 색(色)에 따라 흑령(黑領) 등이 있다. 저고리의 깃을 굳이 구분하자면 직령(直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고리의 깃은 대체로 깃의 세부형태에 따라, 반달깃, 목판(木板)깃, 반목판(半木板)깃, 동그래깃 등으로 불려진다. 포류(袍類)의 경우에는 직령의(直領衣), 단령의(團領衣)라는 뜻으로 그대로 직령(直領), 단령(團領) 등이 의복(衣服)의 명칭(名稱)으로 통용(通用)되기도 한다. 그 때는 글자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관습적(慣習的)으로 약속된 의미가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의복(衣服)의 용어(用語)를 구분할 때는 난해(難解)한 점도 사실이다. 예를들면 「직령(直領)」이라 할 때 깃이 직선(直線)으로 구성(構成)된 것은 모두 직령(直領)이나, 한국 전통복식 용어 중에는 직령이라 하면 앞은 “직선깃이고 뒤는 양쪽으로 무가 넘어가게 된 옷”으로 한정(限定)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이 용어(用語) 하나하나에 대해 분명(分明)한 구분(區分)의 정립(定立)이 현단계로서 어려운 항목도 있다. 그러나 자료(資料)를 체계적(體系的)으로 구분(區分)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항목(項目)을 구별(區別)해야 된다. 특히 중요한 의복요소(衣服要素)인 깃이 관계된 용어(用語)에 혼란이 큰 것은, 그만큼 깃의 중요성이 강조(強調)되는 까닭으로 생각된다.

ㄴ. 깃의 기원(起源)

저고리의 깃이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하기 시작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한국에서 깃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고구려의 고분벽화(古墳壁畫)이다. 벽화는 4세기~7세기 경의 복식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깃

의 유무(有無)를 찾아낼 수 는 없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선(襪)을 단 저고리가 있고, 선을 댔다는 사실은 문헌에서도 확인되므로, 선(襪)이 깃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깃은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구서당(九誓幢)과 금색(衿色)의 관계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고 있어서 저고리의 깃은 통일신라 때에 형성(形成)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선이 옷단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허리선 근처에서 단절된 것을 볼 수 있다. 벽화를 그린 화가의 관찰력이 부족했다거나, 의복의 세부(細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선이 중도에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에 선을 대는 과정에서 이미 깃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때 생기기 시작한 깃은 선이 도중에 단절되어 나간 상태의 목판(木板)형의 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7세기의 유품인 정창원의 유물에서는 직선이 도중에 단절된 형의 저고리를 볼 수 있어서 위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저고리의 깃이 생기게 된 과정으로서 선이 중간에 단절된 형을 들 수 있다.

의복 봉제(縫製)의 측면에서 깃이 생기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로 상의가 만들어질 때에는 직선의 옷감에 앞 중심만을 절개했다고 생각된다. 거기에 옆솔기가 봉제되고 소매가 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의복 재료가 모피류(毛皮類)일 때는 털을 가지고 가장자리를 싸주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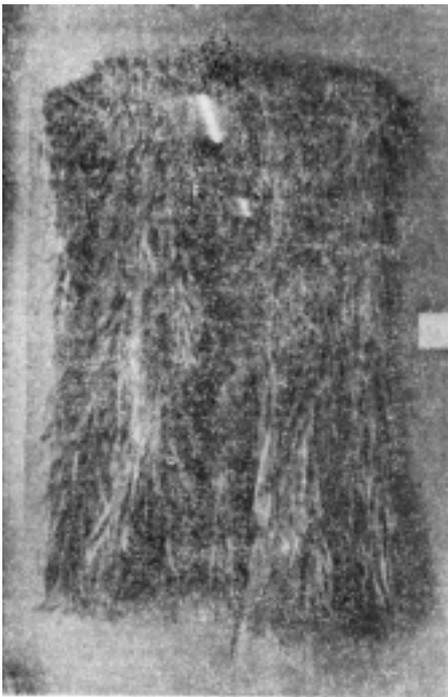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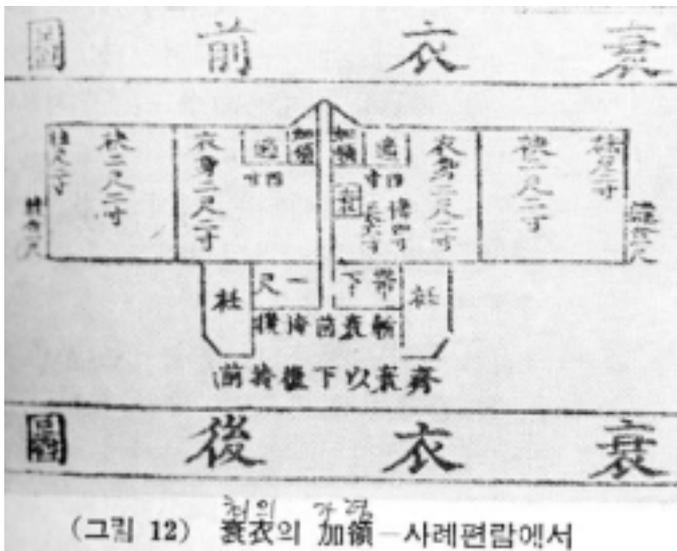
그림 11) 식물을 엮어 만든 초기형태의 상의 - 대만 성립박물관에서

<그림 11> 식물을 엮어 만든 초기형태의 상의 - 대만 성립박물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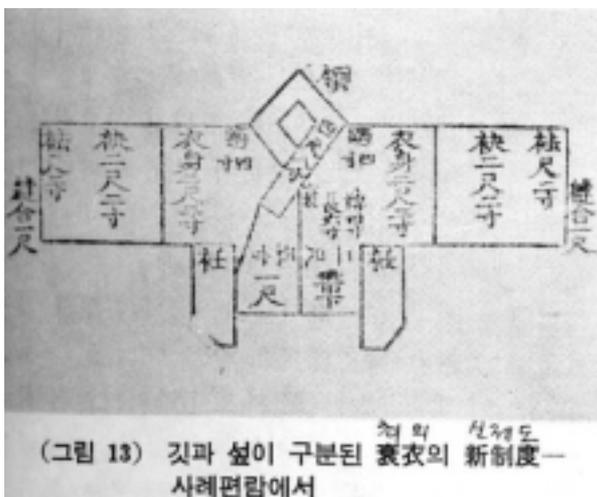
선의 형이 잡힌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또 (그림 11)과 같이 식물(植物)을 엮어서 만들어 입기 시작한 상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천연으로 얻어진 의복은 봉제가 상

당히 어렵기 때문에 옷의 세부봉제가 발달하자면 역시 섬유(纖維)로 된 직물(織物)을 얻은 후라고 볼 수 있다.

한국복식의 고제(古制)를 볼 수 있는 상장(喪葬)의복 중에서 최의(衰衣)의 변화는, 깃의 발달을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최의는 특히 선조(先朝)에 관계된 의복이므로, 조상숭배(祖上崇拜)의 정신이 유달리 강했던 한민족에 있어서는, 상장(喪葬)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고, 신제도를 성립시키자면 국속(國俗)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림 12)의 최의 앞면에는 선이나 깃이 구분되지 않고 가령(加領)이라 하여, 앞 절개선 상단(上端)의 목 옆부분에 깃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활옷의 동정에서도 볼 수 있어서, 활옷의 제도가 그 시원(始原)이 오래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최의의 제도(制度)는 조선중기 사례편람(四禮便覽)이 편성(編成)될 때는 이미 신제도(新制度)가 완성되어 있다.



(그림 12) 최의(衰衣)의 가령(加領) - 사례편람에서



(그림 13) 깃과 삶이 구분된 최의(衰衣)의 신제도(新制度) - 사례편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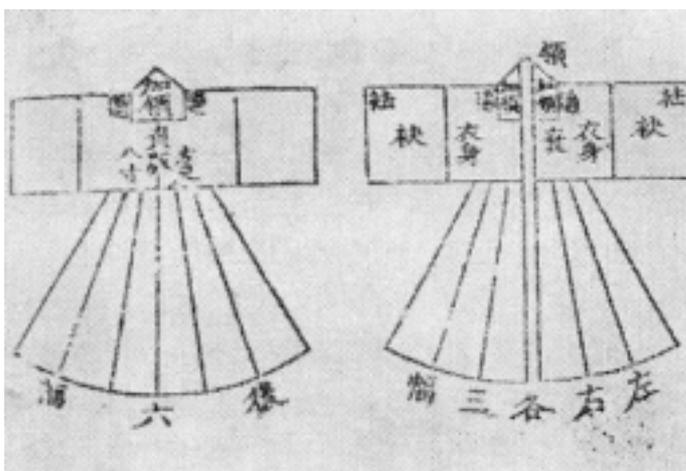
(그림 13)의 신제도에는 이미 깃의 양식이 완성되었고 쉼(衿)의 제도도 확립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저고리가 직선 절개된 합입형(合衿型)으로 변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의 (그림 11)과 같이 직선형으로 절개된 경우에도 착장(着裝)하면 합입(合衿)이 된다. 왜냐하면 옷이 전체적으로 너그럽고, 직선형이므로 앞단을 서로 포개어야 몸에 입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좌(左)로 포개어 지느냐 우(右)로 포개어 지느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고분벽화에서 확인된 것으로는 대개 5세기 이전에는 좌입(左衿)이다가, 좌(左)·우입공존기(右衿共存期), 그리고 우입(右衿)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또 앞단이 직선절개형일 때는 뒷목 밑에 파임을 주어 가령(加領)을 한다. (그림 14) 이와 같은 양식은 현재에도 활옷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13) 그것이 신제도로 깃의 양식이 정해지면 가령도 없어지고 뒷목과 어깨의 직선상에 령(領)이 가해지게 된다. (그림 15)

이상의 자료를 통해볼 때 저고리의 깃은 옷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물로 된 의복을 만든 후에 깃의 양식이 생겨났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2,600여년 전에 이미 직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깃이 그 때부터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깃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깃은 그 후의 고려시대에 와서 안정되었을 것이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깃이 확립(確立)되어 세부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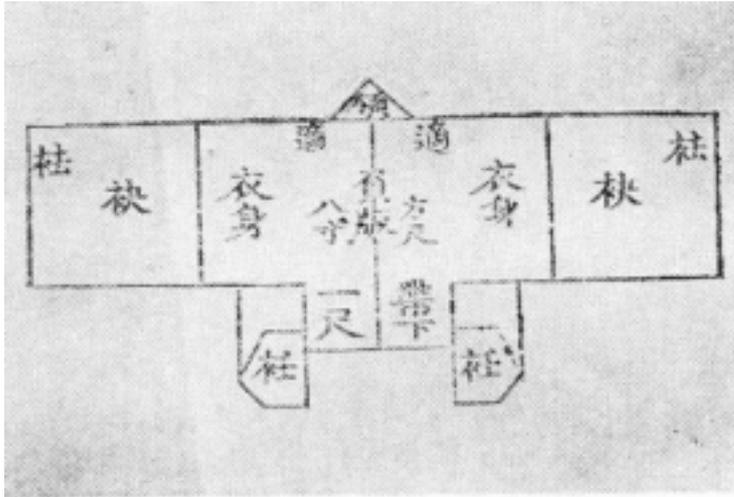
㉔. 깃에 따른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

앞의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저고리는 처음부터 반달형(半月型) 깃으로 변화된 것과 목판형(木板型)깃에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달깃은 주로 서민 여자들의 저고리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남자의 포(袍)는 대개 반달깃이다. 목판깃은 대체로 명주나



(그림 14) 가령(加領)의 후면(後面)

(그림 14) 가령(加領)의 후면(後面)



(그림 15) 新制度의 後面一加領이 없다

(그림 15) 신제도(新制度)의 후면(後面) - 가령(加領)이 없다.

비단 등 고급직물이 많고, 여자의 포(袍)는 모두 목판깃이다. 이와 같은 저고리의 양식 변화(樣式變化)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초의 상의(上衣)에는 직선형의 앞이 절개된 옷에 길(胴)안에 들어달린 가령(加領)이 있었고, 이것이 뒤에 반달형깃(半月型衿)으로 발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현대의 동그래깃으로 변천했다.

㉡ 가령(加領)의 발생과 동시에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선이 중도에서 절단 되면서 목판형 깃의 저고리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 목판저고리는 다시 회장·숨·겹·단·엮터진저고리로 구분할 수 있고, 깃의 형태는 반목판깃(半木板衿), 당코깃, 동그래깃의 순서로 변천했다고 본다.

㉣ 목판깃의 형태는 저고리 뿐만 아니라 표의(表衣)에서도 볼 수 있다. 표의의 목판깃은 길에서 내어달린 목판깃은 희귀하고 대개 길에 들어달린 목판깃이다.

이상과 같이 요약된 자료를 이해(理解)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ㄷ. 기타(其他) 당의(唐衣)의 문제

지금까지 저고리(赤古里)의 자료(資料)를 가지고 깃에 따른 변천양식(變遷樣式)을 고찰(考察)했다. 그 중에는 깃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형태적(形態的) 구분(區分)이 있는 세부(細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옆트임의 문제다. 옆이 절개(切開)된 저고리는 조선초(朝鮮初)·중기(中期)의 실물(實物)에서 남(男)·녀(女)가 모두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朝鮮後期)가 되면 남자(男子)의 옆터진 저고리는 볼 수 없고, 여자(女子)의 옆터진 저고리는 앞 중앙과 옆선이 점차 곡선(曲線)으로 많이 파이면서 트임을 강조(強調)하고 있다. 그것은 통상적(通常的)으로 당의(唐衣)라 하고, 당저고리(唐赤古里), 당고이(唐古伊), 당한삼(唐汗衫) 등으로 표기(表記)되었다.

실물(實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옆이 막힌 저고리와 옆트인 저고리는 조선초기부터 공존(共存)했고, 그 용도(用途)에 차이(差異)가 있었다고 본다. 옆트임 중에서도 밑단 끝에서 15~20cm로 약간 트인 것과 결 밑에서부터 전부 절개된 것이 있다. 트임의

용도(用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 노동(勞動)이나 활동(活動)을 위한 여유 - 남자(男子) 저고리나 서민녀(庶民女)의 저고리

㉡ 두 손을 앞자락 밑에 공수(拱手)하기 위한 의례적(儀禮的) 용도(用途) - 한국(韓國)의 의례(儀禮)는 여름일지라도 손톱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 종교적(宗敎的)인 이유(理由) - 옆을 더 놓는다는 것은 매사(每事)가 술술 잘 통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연구(研究)가 진전되면 좀 더 상세한 이론(理論)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제시(提示)하고자 하는 것은 옆터진 저고리가 저고리(赤古里)의 일종(一種)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가 당의(唐衣)를 다른 항목(項目)으로 보는 것에 대해 필자(筆者)의 견해(見解)를 다시 밝히는 바이다. 옆터진 저고리는 저고리와 공존(共存)하면서, 저고리의 변천(變遷)에 따라 깃과 여러 세부(細部)가 같이 변해 왔다.

㉣ 저고리길이에 따른 유형분석(類型分析)

앞에서 저고리의 깃에 대해 분석(分析)하면서 깃에 의한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살펴보았다. 저고리의 길이에 대한 양식을 살펴보아도 저고리의 시대적 변천이나 특징(特徵)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고리는 시대가 올라 갈수록 길이가 길었고, 점차 짧아지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약간 길어지고 다시 짧아진 반복(反復) fashion의 경험을 갖고 있다. 여자(女子)에 비해서는 남자(男子)저고리가 길고, 길이의 변화는 곧 시대의 반영이 되기도 한다.

깃의 형태에 따라서도 저고리 길이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저고리(赤古里) 실물자료(實物資料)를 가지고 볼 때 조선초기(朝鮮初期) 이전에 저고리의 길이가 짧았던 적은 없다.²²⁾ 고려시대에 원(元)의 영향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학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 소매길이와 형태(形態)

앞서 용도별 유형에서 언급(言及)한 것과 같이 소매길이는 저고리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 저고리의 특성중 하나는 소매가 곡선(曲線)배래로 봉어배의 형태를 하는 것으로 꼽고 있다. 저고리의 특성(特性)을 살리고자하는 design에는 반드시 곡선배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천사적 자료(資料)를 통해서 볼 때, 저고리의 소매가 곡선배래가 된 것은 극히 근대(近代)의 일이다.²³⁾ 긴 역사를 통해 볼 때는 직선 소매가 오히려 전통성(傳統性)을 지닌다.

㉥ 겹섶과 안섶의 크기와 형태

깃이 목판깃으로 길에서 내어 달릴 때에는 겹섶은 위가 아주 좁고 밑이 넓다. 반면에 안섶은 상하가 거의 직선형으로 넓고 길다. 또 깃의 넓이에 따라 섶의 모양이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 깃이 넓어지면 비례적으로 섶도 넓어진다.

㉦ 결무의 유무 및 변화

결무는 소매의 진동선 밑에 삼각형으로 봉제(縫製)된 것을 말하고 조선중기까지는 저고리에 흔히 보인다. 활동(活動)의 편의를 위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대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졌다. 특히 결무를 짙은색으로 봉제하여 남인(南人)의 표지(標識)를 삼았다는 얘기를 후손(後孫)들이 전하기도 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

㉧ 회장(回裝)의 유무(有無)와 크기

길의 옆 소매 밑에 장식선(裝飾線)이 잇는 것을 회장저고리(回裝赤古里)라 하고 고려시대부터 회장잇는 저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에는 소매진동선이 못미칠 정도로 짧게 봉제(縫製)되었으나 점차 소매 위로 높아졌다. 현대에는 아주 높아져서 거의 어깨선에 이른 적도 있다. 회장저고리에는 깃·끝동까지 장식선을 달기도 하는데 회장·깃·끝동에 장식된 것을 3회장저고리, 깃·끝동만을 장식하면 반회장저고리(半回裝赤古里) 그 외에도 깃에만 장식선을 댄 것, 결밑에만 댄 것, 소매끝에만 댄 저고리로 있어 일반적으로 회장저고리라 한다.

⑦ 소매끝의 넓이와 장식선(裝飾線)의 유무(有無)

소매 끝에 다른 단을 대는 것은 저고리의 특성(特性)중의 하나다. 과거의 저고리에는 백색(白色)천을 넓게 댄 것이 많아서 고려도경에 보이는 초수(襟袖)와 연상된다. 회장저고리에는 장식적인 색으로 소매끝을 봉제하는 데, 현대에는 끝동이라고 한다. 조선초에는 넓다가 (14~15cm) 점차 좁아져서 현대에는 5cm 정도에 이른다. 또 저고리에는 끝동을 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초수의 흔적으로는 당의의 수구에 대는 백색선인 거들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소매 끝을 청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손과 관련된 종교적 의미로도 볼 수 있다.

⑧ 저고리의 넓이

저고리의 넓이는 품이라 하고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품은 개인의 체형에 따른 것이지만 조선초기의 저고리는 품이 아주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옷을 너그럽게 입던 생활관습(生活慣習)이고, 신체(身體)와 의복(衣服)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상태라 본다. 즉 품이 넓은 것이 맞는 옷이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저고리 품이 넓었던 것으로 본다.

⑨ 옷고름의 색, 길이, 넓이

옷고름은 좁고 짧은 끈의 상태에서 점차 넓고 길어졌다. 옷고름의 색은 대개 자적계통(紫的系統)이고 이 전통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의 영속적인 것이다. 옷고름의 넓이와 길이가 크고 길어진 것도 상류계급에서 하층계급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저고리를 통해 알 수 있다.

⑩ 옆트임의 유무

옆트임이 있는 저고리는 대개 당의라 할 수 있지만 당의가 아닌 저고리도 많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옷의 편의를 위해 약간의 옆 트임은 자주 봉제해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VI. 결어(結語)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저고리는 일정한 기본구조(基本構造)와 구성요소(構成要素)를 가지고 오늘에 전승(傳承)되고 있다. 저고리의 변천(變遷)을 알 수 있는 유형(類型)은 상당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용도별이나 형태별로 구분(區分)하고 시대별(時代別)로 살펴볼 때 저고리의 변천과정이 확실히 밝혀지고 그 양식(樣式)을 알 수 있다. 저고리의 여러 가지 요소(要素) 중에서도 소매길이의 용도(用途)나 깃의 형태변화가 특히 중요한 요점(要點)이 된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 소매와 깃을 기준(基準)으로 한 저고리의 변천양식을 살펴보았다. 변천양식(變遷樣式)을 잘 아는 것은 저고리의 체계적 연구에 가

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구해진 변천양식은 앞으로 자료의 보완(補完)을 기다려 더 보충하고 개선(改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개념에 보충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중기까지는 평상복(平常服)에도 소매가 긴 저고리를 착용(着用)했다. 이는 한국인의 손에 대한 관념이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옷어튼께는 손을 보이지 않아야 공경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② 저고리에는 2종(種)의 대별(大別)할 수 있는 양식(樣式)이 있다. 깃을 중심으로 볼 때, 목판깃이라는 직선형의 깃과 반달깃이라는 곡선형의 깃이다. 이 두가지는 오래 전부터 공존(共存)해 오다가 근대(近代)에 이르러 합일화(合一化)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목판깃이 점차 변하여 둥그래깃이 되었다는 개념에 보완점을 준다.

③ 저고리에는 시대에 따른 양식변화의 체계(體系)가 있다. 영속적(永續的) 전승성(傳承性)을 보여주는 일면(一面)이 된다.

이와 같이 저고리는 한국인의 정서(情緒)에 맞게 조화(調和) 변천(變遷)해 온 한국 고유(固有)의 민족의복(民族衣服)이다. 저고리에 대해 밝혀야 될 것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본고(本稿)에서는 유형에 따라 저고리의 변천양식(變遷樣式)을 밝히고 한민족(韓民族)의 문화적(文化的) 전승성(傳承性)의 일면(一面)을 찾아 보았다.

<註>

- 1) 高福男, 저고리의 변遷樣式, 月刊文化財 117호 月刊文化財社, 1982
- 2) 徐兢, 高麗圖經, 卷第二十一 驅使條
- 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1
- 4) 舊唐書, 卷二十九 音樂二 高麗樂工人 紫羅帽...黃大衫...金璫二人 黃裙襦 赤黃袴...
- 5) 唐書, 卷二百二十一 列傳二百十五 東夷 新羅 「...男子褐袴 婦長襦...」
- 6) 隨書, 卷二百九十一 列傳第四十六 東夷 高麗 「...複帶袖衫 大口袴 素皮帶...」
- 7) 梁書, 卷五十四 列傳第四十八 諸夷 百濟 「...襦曰複衫 袴曰褲...」
- 8) 舊唐書, 卷一百九十九 列傳第一百四十九 東夷 高麗 「衫筒袖 袴大口...」
- 9) 唐書, 卷二百二十一 列傳第一百四十五 東夷 高句麗 「王服 五采以白羅製冠...大臣青羅冠...衫筒袖 袴大口...」
- 10) 翰苑, 高麗 「上衣曰衫 下曰長袴...」
- 11) 北史, 卷九十四 列傳第八十二 「百濟之國...婦人...衣似袍而袖微大...」
- 12) 三國史記, 卷之三十三 色服 新羅
- 13)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122
- 14) 金東旭, 前揭書, P.9
- 15) 順和堂, 貞 초, 사 절 복 식 자 장 유 람, 淑太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藏
- 16) 世宗實錄, 二年 九月 戊寅 「...紅段子赤古里...」
- 17) 甲午年 四月 春 節 君 夫 人 發 起
- 18) 壬午嘉禮時尙宮 發記
- 19) 高福男, 朝鮮時代 一般服飾의 研究, 淸州師大論文集六輯, 1979
- 20) 高福男, 韓服의 寸수에 대한 연구, 韓國服飾學會誌, 創刊號, 1976
- 21) 徐兢, 高麗圖經, 卷第二十一 婦人條
- 22) 高福男, 前揭書, 朝鮮時代 一般服飾의 研究 참조
- 23) 高福男, 前揭書 參照